

민주·혁신당 ‘전북 조국혁신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5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내에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공동 선거운동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이원택 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위원장과 핵심당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내에 설치된 전북 조국혁신위원회를 통해 정권교체와 정책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양당 관계자와 당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견은 임태백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했다.

최영심 전 전북도의원과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회견문을 낭독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민주당 전북도당 내에 전북 조국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이재명 후보 지원에 나서겠다”며 “전북 도민과 함께 이 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李 후보 압도적 승리 위해 공동선대위 구성”
민주 진보 성향 정당 간 전략적 연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관계자들이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 조국혁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참여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전북 지역 실행 기구다.

양당은 이번 대선을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 수호 세력 간의 본질적인 대결”로 규정하며, 전북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제4기 민주 정부 출범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문에서 양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북은 극심한 차별과 정치적 소외를 겪었다”며 “인구 소멸, 민생 파탄, 존재감 부정 등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전북의 구조적

차별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라며 “전북이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소속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 투표를 90%, 득표를 93%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유세 현장, 정책 제안, 조직 실천 등 모든 활동에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임 선대위 위원장이 된다고 밝혔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 지원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복장을 착용하지는 않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선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대위 구성은 민주 진보 성향 정당 간 전략적 연대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북 지역의 양당 간의 높은 조직력으로 인한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尹정권·검찰 권력 결탁 구조 끊어야”

조국혁신당 검찰해체선봉대, 군산지청 향해 도보행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의 ‘검찰해체선봉대 조국’이 15일 전북 군산지청을 향해 도보 행진을 벌였다.

이날 행진은 오전 9시 30분 군산은파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출발해 나운사거리와 전지랜드, 롯데마트, 우의은행, 롯데몰을 지나 군산지청 앞까지 이어졌다.

‘검찰해체선봉대 조국’은 정치검찰의 행태와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거리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국을 돌며 검찰청 앞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진에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선봉대 단장), 한가선 중앙당 청년위원장, 이주현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군산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검찰 해체는 대한민국의 새

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원 단장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 권력의 결탁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행진이 공식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유급 선거사무원 자격을 갖춘 선봉대원만이 행진에 참여했으며, 시민들과는 도보 중 자연스럽게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해체선봉대 조국’은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식 유세 조직으로, 검찰 규탄 행진과 대선 유세를 결합한 형태로 전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6일에는 정읍지청 방문이 예정돼 있다

/이만호 기자

“빛의 혁명에 이은 빛의 선거 주도”

민주 김윤덕 사무총장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

이 후보, 오늘 전북 방문



보의 호남행 일정을 소개한 뒤 “이재명 후보의 ‘국민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의 일환으로 15일 광주전남, 16일 전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 호남에서 유세 일정을 개시한다”라고 소개한 뒤 “굴곡진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호남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주인공이다. 호남이 민주당에 주신 힘 덕분에,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TMF 극복을 위해 김대중을 선택했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영남 사람 노무현을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을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전북과 전남 광주가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전주와 장수, 진안 등 전북 동부권을 방문해 경정투어를 시행한데 이어 또다시 오는 16일 전북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등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갈 예정으로 역대 대선 후보자들 중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전북을 찾은 정치가가 될 예정이라고 김윤덕 사무총장은 밝혔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15일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 후보임을 주장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수석부본부장과 총무본부장, 테러 대응 TF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김윤덕 사무총장은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은 준비된 실력”이라고 말한 뒤, 이번 대선은 검증되고 철저하게 준비된 이재명 후보와 극우보수를 등에 업고 벼락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 간의 대결이라면서 과연 누가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어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캠프는 준비되지 않은 선수로 싸우려니 반칙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병태균식 왜곡·납조와 눈속임 여론조사가 등장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글들이 SNS에서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당당당하게 승부하겠다”면서 “준비된 정책으로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빛의 혁명’에 이은 ‘빛의 선거’를 주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



●전북 장애인 정책포럼 소속 17개 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주개인택시조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하겠다”

전북 장애인 정책포럼 소속 17개 단체 · 전주개인택시조합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조합장 이주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전북 장애인 17개 단체 “장애인 권리 보장 공약 이행… 절실한 요구 담겨 있어”

전북 장애인 정책포럼 소속 17개 장애인 단체 대표 20여명은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을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의 삶을 개선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박경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장애인 이동권 강화 ▲개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차별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발달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책임제 도입 등은 장애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약속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의 공약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의 오랜 요구가 담긴 절실한 공약들”이라며 “이에 전북 장애인 정책포럼 소속 17개 장애인 단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장애인을 대표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다운복지센터 김미아 대표와 중증자립생활연대 강현석 소장이 발언했다.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발효된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의 날이었다”며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들도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다수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다.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 “서민 고통 공감하고 실천해… 택시산업 위기 해결 기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시민의 발이자 골목길 민심의 전령사로 살아가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합 임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실질적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이라며, “고통받는 택시업계와 시민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주섭 조합장은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은 하루하루 거리를 누비며 시민의 삶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살아 나른다”며 “현장을 모르는 정치,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는 결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시민의 삶을 직접 마주하는 택시기사로서,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된 정치인을 원한다”

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역임하면서 복지, 교통, 경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유능한 행정가”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합은 이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등의 정책을 “서민을 위한 철폐와 의지를 실천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우리 택시업계는 유류비 급등, 호출 앱 수수료 증가, 코로나 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택시 산업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기사들의 권익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한다”며 “택시 기사가 안전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세상, 시민이 신뢰하는 대중교통 환경,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길에 이재명 후보가 앞장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이색 선거운동 ‘눈길’

정읍지역 시·도의원, ‘아재댄스단’ 활동 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별로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자는 특색있는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윤준병 위원장)는 15일 정읍시 샘고을 시장에서 도의원, 시의원들로 율동팀을 구성하고, 공연을 펼쳐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아재 댄스단(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이상길·정상철·김석환·고성환 정읍시의원) 단장을 맡은 염영선 전북자치도 의원은 “내란으로 촉발된 대통령 선거에 지역민들께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율동팀을 운영하게 됐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축제인 만큼 한바탕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총선때도 율동팀을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지역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아재댄스단’이 15일 정읍 샘고을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선관위,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4,700여 곳에 첩부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관련)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지속가능 농식품업 일자리 창출 지원 수행기관 선정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2025년 지속가능한 농식품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핵심사업은 도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용지원금과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먼저 채용지원금은 농식품 분야 기업이 3개월 인턴ship을 지원하고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한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채용지원금 1명 기

준 100만원을 총 185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어 농식품업 근무환경 개선으로 도내 농식품 기업의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직원 휴게공간 신설 및 개선으로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도내 농식품업 10개소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의 10% 자부담, 환경개선 이후 상용분야 신규채용 1명 이상이 선정 조건이다.

/참은성 기자